



Katolk ID: sangyonglee
sunnyindia2013
shemasy69@gmail.com
ryuinsoon70@hanmail.net

*신 한 은 행 110-095-204523(이 상 용)
*하 나 은 행 35393304975737
(기 아 대 책 이 상 용)

할렐루야! 주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뇌리에 스치는 복음송 가사가 떠오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 [봉재교육] 봉재교육생들이 출석율이 다소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 보다 관심과 의지가 많이 시들해 진듯합니다. 학기가 시작하면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 소풍도 가고 각 가정 심방도 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차일 피일 미뤘었는데 학생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는 차원에서 심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도 손님접대에 상당히 신경 쓰는 문화인지라 물만 마시고 갈 거라고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방을 통해서 각 학생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로 소망합니다.

✚ [파트나 시온교회]. 성도가 없이 매일 만나는 봉재교육생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에도 성도가 있어서 예배에 활력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힌두교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들이 출업을 위해서 마지 못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심령이 예배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가운데 깨지고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 무쌍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출석율! 날마다 새로운 어린이들이 3-4 명씩 교회에 옵니다. 반면 서너 번 출석했던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듯이 아이들이 출석율이 넘실대는 가운데도 꾸준히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정철영어성경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관심을 갖다고 곧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지만 들려지는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선교사 동정] # 세종학당 교사로서의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파트나)에 살고 있는 세종학당 학생들이 저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약속한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 대여섯명의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줄 각각의 롤링페이퍼와 과일바구니를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감동,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까지 저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한국어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인순 선교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급격한 체력저하로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인근 개인병원에서 혈액검사, 약 처방과 함께 영양주사를 세차례 맞고 거의 한달만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에 운동(축구)을 하려고 집 앞 캠퍼스 학생들과 운동을 하던 중 저희 지역 경찰(네팔 용병)축구 팀을 소개받았고 그들과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Katolk ID: sangyonglee
 sunnyindia2013
shemasy69@gmail.com
ryuinsoon70@hanmail.net

*신 한 은행 110-095-204523(이 상 용)
 *하 나 은행 35393304975737
 (기 아 대 책 이 상 용)

이주노동자로 많이 가는 네팔인들이라 한국인인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영상통화도 시켜주면서 휴가 때 자신의 고향에 놀러가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들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호찬이가 머무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은이는 음악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은이를 통해서 맡겨진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구로 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파트나 시온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2. 영육이 건강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3. 어린이 교사, 방과 후 학교를 맡을 교사를 채워 주소서.

